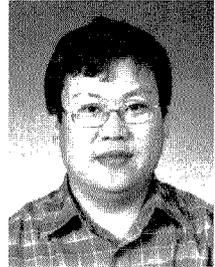


# 1985년 나의 일기



전 강원 민통련 원주분회장 김기봉

(사)민예총 지역문화예술위원장, 강원 민예총 사무처장

이전혀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조발심을 잊지 말자는 선후배들을 만나면 다시금 힘을 얻는다.  
유명하지는 않지만 북북히 자기 지역과 현장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분들을 생각하면서, 민통련 20주년 그 앞에 머리 숙인다.

## 1. 85년 나의 일기에서 원주 지역의 활동 내용

민통련 20주년 기념 행사의 문화행사를 담당하게 되었다. 그래서 소재를 찾기 위해 오랫동안 아파트 베란다에 싸 놓았던 짐을 뒤지기 시작했다. 대부분 처분했거나, 지난 번 원주에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행사로 진행되었던 민주주의 전시회 때 자료를 내놓았기 때문에 큰 기대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한 구석에 치박혀 있는 '1985 더불어 사는 세상'이라는 작은 수첩이 눈에 띄었다. 그 속에 몇 장의 메모지가 있었다. 신기하게도 1985년도 내가 지역에서 활동했던 내용들과 민통련 원주분회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당시 집회에서 연설하는 사진 몇 장도 발견되었다. 다음의 내용은 그 수첩에 적혀 있는 활동의 내용이다.

7월 21일	17기 탈놀이 강습회
7월 28일~8월 15일	진광고등학교 탈놀이 강습회
8월 14일	가농 원성군 농민대회 참가
8월 17일	YMCA 중등교사협의회 수련대회 문화시간 진행 (춤, 노래, 율동지도 및 대동놀이)
8월 27일	가농 제천군 농민대회 참가
9월 14일	YWCA 경로잔치 참가
9월~11월	원주교도소 재소자 탈춤체조 강습
9월 20일	동국대 노래패 '아리랑' 초청 공연
10월 12일	치악문화제 행사에 놀이마당 주최
10월 29일	대학노래패 창립 공연
11월 3일	경북 영주 방통대 탈반 창립시키다. 체육대회 대동놀이 지도
11월 21일	횡성 가농 추수감사제
11월 22일	제천 가농 추수감사제
11월 25일	원주 가농 추수감사제, 경찰과 충돌, 시위주도
11월 29일	전학련 원주지구 결성대회, 2명 구속(노리패1), 5명 수배

## 2. 나의 일기에서 민통련 관련 내용

- 일기장 속의 메모지에서 -

- 2월 4일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강원도지부 원주분회 결성  
분회장 : 성낙철  
간사 : 김기봉  
2월 6일 사무실 준비  
2월 7일 현판식
- 민통련 ← 모임의 실체  
지역운동 인사들이 지역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조직  
공개운동기구로서의 공간 문제  
운동 인식의 문제

• 조직의 강도 부족

1) 지역운동 → 공개정투 → 매스(mass) 획득

공개적 틀을 마련치 못했다. 기관지 발행, 전단 살포 정도는 가능하지 않았겠는가.

대중선전물

2) 조직강화 → 하부토대 부족 → 재정자립 실패 → 하부 그룹 無

제시) 뿌리, 지식인층도 규합

3) 지역운동의 특성에서 부문운동 강화

농어민문제, 광산문제

부문운동단체로 J·O·C, 가농

자료집

4) 운동원의 자세

공개적 틀이 미비

내부규율

논의구조 이루어지지 못했다.

(핵심) 조직과 재정자립

프로그램 빈약

• 86년도 원주분회 제1차 모임(민통련 원주분회 회의는 85년도 총 7차례 회의)

1. 참석자 : 성희도, 임광호, 임광용, 조성만, 최은옥, 강범희, 유수근, 정대호, 김기봉

2. 86년 1월 12일 11시 30분 가톨릭센터 사회개발국 회의실

3. 내용

- 민통련 신년사 낭독 - 임광호

- 85년도 12월 18일 춘천에서 도 사무국 결산모임(4명 참석, 활동평가)

- 교육커리와 소그룹 활동의 구체적 방법에 대하여 보고

- 공개운동 강화 : 지역운동의 부분활동 강화, 대중성 획득의 방법론 문제, 하부토대 구축을 통한 조직확산, 중심고리와 연결

- 사례발표 : 임광호 - 농촌청년들을 통한 조직 시도

정기집회를 통해 의식화 작업 진행. 질문 중 커리는 누가 만들었냐, 진행 중 가장 어려운 문제는 뭐였냐는 것이 있었음.

### 3. 흔적을 통한 추억찾기

80년 5월 광주의 민중항쟁은 나의 발길을 고향으로 내려가게 하였다. 대학 3학년 시절이었지만, 광주의 패배는 고립투쟁에서 온 것이므로 지역운동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였다. 광주의 학살도 알려내고, 지역운동의 근거지를 만들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 원주 출신의 대학운동권 선배들과 스터디 조직을 만드는 것이었다. 강원대 운동권 출신의 성낙철 선배, 전북대 운동권 출신의 박성욱 등과 원주 가톨릭센터 2층에 있는 JOC 사무실에 모여 원주의 대학생들을 규합하였다. 초기에는 원주 가톨릭대학생회의 회원들을 중심으로 하였다. 몇 차례 학습모임을 하면서 우리는 지역의 공개운동 틀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대중을 규합하는데 가장 적합한 것이 문화운동이라고 생각하고, 마침 박성욱 선배가 전북대 탈출반 출신이라 탈출강습회 등을 통해서 직접 대중들과 만나기로 했다. 그래서 1981년 1월 21일 원주 민속연구회라는 이름으로 첫 탈출강습회를 시작하였다. 원주의 청년·학생운동이 조직적으로 출발한 날로 기억되리라. 그전까지만 해도 원주는 지학순 주교나 장일순 선생, 이창복 선생 등을 중심으로 한 명망가 운동과 천주교의 사회개발국을 중심으로 한 농촌운동이 전부였다.

지역의 청년·학생운동은 원주 민속연구회로부터 시작되었다. 지역의 상지대 학생이나 연세대 원주분교, 원주간호전문대 학생들을 탈출강습회로 조직하여 이후 대학의 탈출패를 만드는 배경이 되었다. 각 대학의 탈출패는 각 대학 운동권의 시초가 되었다. 그러다 82년도에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이 터지고, 우리 회원들이 김현장 선생의 학습조직에 연루되어 조직이 위기를 맞게 되었다. 그 위기를 힘들게 극복하면서, 84년도까지는 조직 유지에만 신경을 썼다.

반전의 계기가 된 때는 85년도부터다. 군대에 갔던 박성욱 선배가 전북대를 졸업하고 원주에 돌아온 후, 초기의 원주 민속연구회 회원들 중 주축 멤버들도 85년도부터 제대하고 돌아오기 시작했다. 그 동안의 감성적 운동에서 벗어나 체계적인 조직운동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비밀리에 학습조직을 만들어, 변혁운동이론을 공부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와중에 민통련 원주분회가 결성되었다. 원주에서 '천하태평'이라는 식당을 운영하던 선종원 선배가 "이창복 선생이 민통련 조직을 만들려고 하는데 원주에도 지역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그 실무 역할을 나에게 부탁하면서 민통련 원주분회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민통련 본부보다

도 원주지역에 지역조직이 먼저 만들어진 것이다. 본부가 결성되기 전에 지역조직부터 만들고 최초의 실무자가 되었다. 원주분회를 만들고 강원도지부도 만들었는데, 당시의 운동방식은 중앙조직을 먼저 결성하고 지역조직을 만들어나가는 하향식이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매우 우습지만 그래도 상향식 조직의 최초 형태가 아니었나 싶다. 그래봐야 분회장 성낙철, 간사 김기봉 두 사람이 시작하였지만 사실은 혼자였다. 사무실도 없었다. 내 기억에는 원주 가톨릭센터의 지하다방이 사무실이었다. 내가 이창복 선생에게 사무실 하나 얻어 주면 일 잘할 수 있겠다고 부탁을 한 기억이 새롭다.

그 해 몇 차례 회의가 춘천과 원주를 오가면서 이루어졌고, 이어서 민주통일국민회의 강원지부가 2월 26일 원주 가톨릭센터에서 결성되었다. 민통련에 대한 정보를 먼저 얻어서 원주분회를 결성하였지만, 사실상 활동은 민주통일국민회의로 시작된 것이었다.

1985년 3월 29일 민통련 창립될 때 지역의 민통련 조직은 모두 4개였다. 서울, 강원, 경남, 경북이 그곳이었는데, 일찍 강원 민통련이 결성되게 된 데는 이러한 배경이 있었다. 이때의 강원 민통련은 사실상 민통련 원주분회였다.

#### 4. 5·3인천항쟁에 대한 추억

86년도 3월 30일 광주에서 시작된 신민당 개헌추진 시도지부 결성대회를 계기로 전국의 시도지부 결성대회에 민통련 지역조직의 총출동령이 내려졌다. 그리고 그 싸움의 최종 집결지가 5월 3일 인천대회였다. 나는 5월 2일 장충동에 있는 민통련 사무실로 갔다. 거기서 “넌 몸이 불편하니까, 이해찬(현 국무총리) 선배랑 함께 전날 집결지인 인천 모 성당에 유인물을 가지고 들어가라.”는 지시를 받았다. 당시 이해찬 선배는 서울대 앞에서 서점을 운영하면서 유일하게 자가용을 가지고 있었다. 인천 들어가는 도중에 한 번 검문을 당했다. 그때 트렁크와 뒷 자석에는 유인물과 내일 쓸 각종 행사관련 비품을 싣고 있었는데, 조수석에 앉아 있던 내가 목발을 들어 보였더니 검문을 하지 않고 통과시켰다. 호인수 신부가 있던 인천의 모성당으로 무사히 도착하니 전국의 동지들이 속속 모여들고 있었다. 분위기는 매우 격앙되어 있으면서도 차분하였다. 즉석에서 지운협 회의가 열리고 내일 대회 때 민통련은 별도의 집회를 하기로 결정되었다.

5월 3일, 각 지역 대표들은 거리 한복판에 만들어진 무대에 올라가서 연설을 하였다. 그러나 나는 쇼아미베로 왼쪽 다리가 불편했기 때문에 너무 가파른 집회 무대에 올라가지 못

했다. 목발을 짚고 밑에서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 날 무대 연설자들을 경찰에서 사진과 비디오로 다 촬영하여, 그 다음날 전원 수배와 체포령을 내렸다. 지도부의 수십 명이 체포거나 수배된 가운데 이해찬 선배랑 나는 살아남았다. 지운협이 이호웅 선배가 구속되고, 이광철 선배는 수배되었다.

## 5. 아직도 할 일이...

대부분 떠났다. 정치권이나 생계를 위한 일터로. 운동 현장에서 내 위의 선배를 만나기는 거의 힘들다. 어느새 내가 최고참의 선배가 되어 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문화관에서 뒹굴던 선후배들이나 원주지역에서 8~90년대를 함께 보냈던 후배들 중 상당수가 여전히 운동판에서 활동을 한다. 내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민예총은 80년대 민중문화운동협의회 활동을 계승하고 있다. 한번도 지역을 떠나 일을 한 적이 없다가, 2004년도부터 본부 민예총 일을 하고 있다. 그래봐야 여전히 지역과 관련된 일이지만 말이다.

민중문화운동협의회 시절에도 지역 문화패들은 민통련의 '지운협' 처럼 '지문협'을 만들어 모였었다. 전국을 돌면서 지역에서 모임을 가졌었다. 그 때의 사람들을 2004년도부터 심심치 않게 민예총 활동에서 만난다. 한국문화정책연구소의 소장을 맡고 있는 정희섭(서울),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의 박영정 박사(광주), 대전 민예총 사무처장 정봉현(대전), 대구 민예총 사무처장 김헌근(대구). 그러더니 올해는 부산 민예총 사무처장을 정승천(부산) 동지가 맡게 되었다. 지문협의 좌장 역할을 하던 김원호 선배(전주)도 강화도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만화가 장진영 선배(서울)도 강화도에서 열심히 살고 계신다. 여전히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초발심을 잊지 말자는 선후배들을 만나면, 다시금 힘을 얻는다. 유명하지는 않지만 묵묵히 자기 지역과 현장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분들을 생각하면서, 민통련 20주년 그 앞에 머리 숙인다.